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오카야마시의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오카야마시는 경기 회복 기조를 배경으로 한 세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타카야 전 시장이 집행한 행정 개혁의 성과에서 지방 공공 단체의 부채와 이자 지급인 공채비도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 상황을 근거로 「건전한 재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생각이며 이런 방침을 기초로 정책 우선 순위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중점화하고 그 결과 일반 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인 41억 엔의 1.5% 증가한 2,848억 엔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 창출」과 「마을 만들기」 「사회 보장」 「교육」 등 매우 중요한 과제를 확실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오카야마 조차장 부지 잔액 125억 엔 중 2/3에 해당하는 약 80억 엔의 용지를 재취득해 오랜 현안의 해결에 길을 트는 등 부정적인 요인의 해결도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 재원 조정을 위한 기금 잔액은 작년을 웃도는 59억 엔을 차용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결산 잉여 등을 기금에 편입했기에 기금 총액은 작년의 같은 기간을 웃도는 235억 엔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재정 수지의 균형에 이바지하고, 오카야마가 더 도약 해 나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눈을 돌리면, 전후 첫 번째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이 육박하는 가운데, 사회 보장 관계 경비의 증가와 시민의 생활이나 시정 운영을 지지하는 시보유 시설의 진화, 노후화 대책 등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결코 많지는 않지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오카야마시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 으뜸가는 도시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야 할 일에는 확실한 예산을 편성하고 신축성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해 더욱더 좋은 오카야마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자 합니다.